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赫 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成均館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社 會 福 祉 學 科

社 會 福 祉 實 踐 專 攻

康 浚 赫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赫 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f Main Factor Affected by the Local Residents
for Multicultural Family

- Focused on Jeju Region -

成均館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實踐專攻

康 浚 赫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赫 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f Main Factor Affected by the Local Residents
for Multicultural Family

- Focused on Jeju Region -

이 論文을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1 年 10 月 日

成均館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實踐專攻

康 浚 赫

이 論文을 康浚赫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11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목 차

논문요약	iv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7
1. 제주인의 다문화 인식과 역사적 배경	7
2. 다문화 가정과 인식의 개념	10
3. 다문화 관련 주요이론	23
4. 연구문제	33
5. 연구모형	35
제3장 연구방법	36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6
2. 측정도구	37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1
4. 분석방법	44
제4장 연구결과	47
제5장 결론 및 논의	67
1. 요약 및 논의	67
2. 결론 및 제언	76

참고문헌	78
부 록	87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다문화 가정의 유형분류	13
<표 2> 선행연구 :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
<표 3> 측정 도구의 구성	41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3
<표 5> 사회적 거리감 척도유형과 혼합유형에 부여된 지수 및 척도점수	45
<표 6> 변인들의 경향성	47
<표 6-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평균	48
<표 6-2>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평균	49
<표 6-3>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 평균	51
<표 6-4>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평균	52
<표 7>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55
<표 8>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56
<표 9>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57
<표 10> 단일민족과 다민족 선호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59
<표 11> 다문화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61
<표 12> 독립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회귀모형 요약	62
<표 13> 독립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66

논문요약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올바르게 상호 공존하며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다문화 관련 경험 유무 등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대~60대의 성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분석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23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3.35점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2.64점) 혹은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2.63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주지역 주민들은 단일민족 또는 단일혈통을 선호하고 있었다. 실제로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집단(94명)의 사례수가 다민족을 선호하는 집단(24명)보다 많게 나왔다. 특히, 제주지역 주민들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

술적·경제적 수준이 높은 외국인에 대해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폐쇄성과 선택적 차별주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주민들은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혈통적-문화적 요건들보다 정치적-법적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치적-법적 요인들만 충족된다면 다문화 가정을 같은 사회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볼 때 연령이 높은 집단, 혼인집단, 학력이 낮은 집단,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 제주에서 출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해외 여행,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 다문화 정보 접촉 등 다문화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여러 변인들 중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연령,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해외여행 경험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아래 제주인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재창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이 다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지역사회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인정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문화 가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제어 : 제주지역, 다문화 가정, 다민족, 지역사회, 인식, 민족정체성

제1장 서론

20세기 후반 문명의 진행 과정에서 탄생한 세계화의 물결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인구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필연적으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삶의 양식인 문화를 동반한다. 특히 이와 같은 형태의 문화 이동은 소수집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지닌 문화는 새롭게 정착한 지리적 범주 내의 기존 문화와 만나게 된다. 이렇게 소수집단에 의해 이동해 온 새로운 문화는 원래 거주자로서 다수집단이 가진 기존의 문화와 자연적으로 충돌하며 통합되어간다. 이후 통합을 위한 충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는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동안 단군신화라는 정신적 뿌리를 바탕으로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고수하던 한국사회도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변화의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사회 역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 이민 송출국이었으나 이주 노동자 도입이 합법화된 1992년부터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이민 수용국으로 변모하여 이른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윤인진 외, 2010: 14).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자 신고현황¹⁾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해외이주는 1976년 46,533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09년에는 1,153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2007년 9월 30일 기준 1,018,036명으로 최초 100만은 넘어서기 시작해 최근 2010년 12월에는 1,261,415명으로 20만 이상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양적 증가만큼 국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법무부의 ‘등록외

1) 해외이주신고자 현황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통상부에 신고한 현황을 말한다.

국민 지역별 현황’(2010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184개국의 외국인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인구유입은 다양한 민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유입을 의미한다(장임숙, 2010: 247).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요인은 크게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먼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수치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476,179명 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2월 현재는 그 수가 557,941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외국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자본주의에 의한 노동시장유연성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외국인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증가이다.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성비 불균형 그리고 결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 남성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은 여성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박재규, 2009: 138). 특히 농촌지역 인구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몇몇 종교단체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행하는 국제결혼추진,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증가 등이 농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의 국제결혼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인 다문화 가정을 탄생시키고 있다(김진숙 외, 2010; 엄명용, 2010). 이러한 영향으로 2007년 12월 110,362명 이었던 결혼이민자의 수가 2010년 12월에는 141,654명으로 무려 3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중 여성은 123,093명으로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보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비교적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 동남아시아 출신들이다.

이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은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임미선, 2010: 1). 이와 같은 시대변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다문화적 측면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사회도 이른바 다문화 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원숙연·박진경, 2009; Kymlicka, 1995). 때문에 현재 급격히 달라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다문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150년 이상 외국인 인구유입이 진행되어온 서구와는 달리 20년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인 유입이 전개되는 세계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의 외국인 이주 자체가 최근에서야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다민족·다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능력 자체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정책적 경험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유문무, 2010: 84).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할 때 한국사회가 인구비율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만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적 변화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심우엽, 2010). 최근 국내 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 자녀의 국민·민족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은 자기 자녀가 한국인이라는 데 97.3%가 동의하였고, 한민족이라 데 97.0%가 동의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비한국인(외국인) 혹은 비한민족(혼혈인)으로 타자화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 부부는 그들의 자녀를 한국인이나 한민족이 아닌 제3의 범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결혼이민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점을 대부분(68.0%)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54.4%)만 동의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곧 순수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한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설동훈, 2006). 윤인진 외(2010)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

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조사”²⁾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들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에 대한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외(2010: 114)의 연구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는 질문에 반대(10.5%), 보통(26.6%), 찬성(62.9%)으로 답하고 있으며,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질문에 반대(16.3%), 보통(39.6%), 찬성(44.1%)으로 나타나 문화다양성이 가져올 사회분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도가 높아 한국인이 다문화주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다문화 인식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 국내 자체 평가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더욱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지수 중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 항목에서 2008년 55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였으며, 2009년에도 57개 조사대상국 중 56위로 최하위 수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병규·정유훈, 2009: 8).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정책이 지역사회 의 여론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정책 역시 다문화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여론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다수집단의 이해와 수용의 태도에 달려있다(Schalk-Soekia and Van de Vijver, 2008).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문

2) 윤인진 외(2010)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는 2008년 한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화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수자인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집단의 주된 의견이다(장임숙, 2010).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증연구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원숙연·박진경, 2009).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합한 사회서비스 및 정책 개발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살펴보는 기초 작업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책개발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연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학문 분야에서 현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진행됐다 하더라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는 주로 교사, 학생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혜림, 2010; 임미선, 2010; 이희옥, 2010; 하경애, 2010; 조혜영, 2009). 물론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 및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 역시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며, 부분은 전체의 영향을 받는다. 즉 다문화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내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좀 더 큰 틀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윤인진 외(2010)의 연구가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2008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해 최근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12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할당된 표본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분명히 구별되는 공간적,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제주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매년 20%이상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

주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전국비율에 맞먹는 인구유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황석규, 2009: 376).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관련 인식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제주가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국제자유도시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때문에 다문화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인식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 지역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현재 제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소수집단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다수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소수의 시민과 다수의 시민들이 올바르게 상호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제주인의 다문화 인식과 역사적 배경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제주인의 외지인과 외부문화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경험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동일한 생활환경과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였다.

먼저 제주도는 섬지역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리적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제주인의 생활은 대부분 섬이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외부 문화와 단절된 생활환경은 제주사람들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인조에서 순조까지 약 200년간(1629~1830) 시행된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³⁾은 제주의 단절된 문화의 고유성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제주인과 외지인을 구분하는 인식적 틀로 작용하였다. 현재까지도 제주사회에서의 외부세계는 바로 ‘육지’로 표현되며 외지인은 ‘육지사람’으로 표현된다(유철인, 1995: 378). 여기에서 육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사회를 가리키며 육지사람은 제주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3) 출륙금지령이란 제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한 정책이다. 15세기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제주 역시 지방자치체제가 아닌 강력해진 중앙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정책은 제주사람들의 생활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폐해로 인해 제주사람들에게는 과중한 부역이 부과 되었으며, 중앙위주 조세정책은 진상과 공물에 대한 착취로 이어져 제주인의 삶은 피폐해 졌다. 때문에 제주사람들의 출륙은 날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제주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처럼 출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조선정부에서는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안이 필요했다. 결국 1629년(인조 7년)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모든 제주사람들에 대해 출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장혜련, 2009).

통속적 표현 속에는 외부와 단절된 생활환경 속에서 생겨난 공통된 집단의식과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제주인과 외지인을 구분하는 표현은 때때로 외부세계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즉 제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두 외지사람으로 구분지어지며, 외지사람들의 유입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환경적 요인 못지않게 역사적 사건⁴⁾ 역시 제주인의 외지인을 바라보는 인식적 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고려에 의해 ‘탐라’라는 명칭이 ‘제주(濟州)’라는 명칭으로 바뀐 이래 제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세계에 의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왔다. 삼별초가 패배한 이후 몽골은 무려 100년간 제주를 지배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주의 문화와 정체성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제주는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중앙 양반들의 좌천지 혹은 유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역시 외지인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했다. 대한제국의 조세개혁에 따른 폐단과 서구 종교의 우월주의가 결합하여 지방 기득권과 제주 고유의 신앙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촉발된 이재수의 난은 제주사람들이 외국인과 서구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영권, 2005: 209). 특히 일제강점기 제주사람들은 일본군에 의한 수탈행위와 강제노동, 징병 및 징용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아직도 제주 곳곳에는 시대의 아픔이 남기고 간 역사적 상흔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인의 민족정체성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4·3사건은 제주사람들을 외부의 어느 누구도 쉽게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수난의 역사 속에 생겨난 피해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6.25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난민들이 제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산업화를 기점으로

4) 제주인의 외지인에 대한 인식적 토대가 되는 역사적 사건들의 흐름은 황석규(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제주 이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외지인들이 제주에 들어와 촌락을 형성하여 사업과 노동을 통해 제주의 중·상류층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를 지켜본 제주사람들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지것’, ‘육지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후 제주도는 교통, 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지속적인 입도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학업, 취업 등을 위한 제주지역 청년들의 출도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성향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주인의 의식 속에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은 존재한다(황석규, 2009: 374).

2001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이 시기와 맞물려 국내외 관광객,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민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허나 최근의 변화는 지금까지 외부사건에 의한 외지인의 유입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필요한 노동인력 수요의 증가와 농촌지역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제주인 스스로가 외부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즉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입장에서 외부인을 선택적으로 끌어들이는 인구유입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인구유입은 과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차별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정광중 외, 2011: 187). 따라서 현재 제주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선택적 차별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사람들은 외부문화와 외지인에 대해 개방성과 폐쇄성을 모두 가진다. 즉, 최근의 사회변화로 인해 외지인과 외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제주의 환경적 특성과 역사적 사건들을 고려할 때 피해의식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폐쇄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비단 제주사회만이 가진 특성은 아닐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한국사회 전체를 볼 때 유사한 역사

적 사건들이 있어 왔으며, 세계화의 물결로 현재 한국사회 전체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인구가 모여 하나의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다문화 인식 연구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측하고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가정과 인식의 개념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문화란 의식주를 비롯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습득한 언어, 종교, 학문, 예술, 법,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분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용어이다(Tylor, 2010; Bullivant, 1984). 즉, 광의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생활양식 자체를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수렵, 채집, 농사 등 생존을 위한 수단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존수단들은 삶의 방식을 구성하며 일부는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 그것은 교육, 양육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의식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레 인간의 삶 속에 녹아드는 무의식적인 부분 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때문에 한번 고착된 문화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 문화적 충돌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의 삶속에 구석구석 녹아있는 문화는 인간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공유되며, 비교적 동일한 환경을 가진 공간에서 쉽게 융화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는 한 지역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기 다른 문화들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동일한 공간 내에서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의 통합은 적정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비례한다. 그러나 최근 이희옥(2010: 3), 김아영

(1995: 11) 등은 다문화를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현대들이 하나로 융화를 이룬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념 설정에는 시간적 관점이 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일 다문화라는 개념을 하나의 융화된 상태로 본다면 그것은 다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문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인구이주의 계기를 만들었던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래로 현재까지 500년 넘게 수많은 문화의 이동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이러한 문화의 이동은 본래의 토착문화와 만나 그 속에 편입되기도 했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융합된 문화를 우리는 더 이상 다문화라 부르지 않는다. 단지 최근에 급격히 일어나는 인구이주의 현상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화의 만남을 다문화라 명명할 뿐이다. 즉, 다문화의 개념은 문법상 지극히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따라서 필자는 다문화의 개념을 ‘각기 다른 문화의 뿌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융합되어가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 역시 이러한 사유로부터 크게 벗어남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조혜영 외 2007, 57; 황범주, 2008, 7). 허나 이러한 정의는 자민족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일방적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라는 것은 이미 공통된 하나의 범주를 의미하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범주에서 벗어난 소수집단에 대한 상호간의 동등하지 못한 차별적 시각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만큼은 문화의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의 문화를 차별이 없는 동등한 객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한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적 정의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

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는 자국 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상당히 협의적인 개념으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김미선, 2010).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두 관점의 보완적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새롭게 정의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가족이라는 범주 내에서 공통된 하나의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서로 다른 문화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자료의 효과적인 분석과 정리를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 못지않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범주를 한정시키고 유형화 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인구의 비중과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선택된 범주들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가정’으로 구분지어 분류하였다. 우선 결혼이민자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혹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특히 국제결혼가족은 다른 유형의 다문화 가정에 비해 한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으로 수정하여 명명하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었다(오진숙, 2009).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역시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또는 동거)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 혹은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을 말하며, 자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 남성 혹은 여성이 단독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리형 가족까지 포함된다(박범식, 2008: 6).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1년마다 갱신)하고 단기간 취업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정착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 모국에 있는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다.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모두 다문화 가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성장환경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다를 수 있다(오성배, 2009).

마지막으로 새터민 가정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혹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을 말하며,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도 포함한다(임미선 2010; 한혜림 2010; 이희옥 2010). 새터민의 경우 동일한 민족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이질적인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한국 문화와는 조금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새터민을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가정의 유형분류

다문화가정 유형	정 의
국제결혼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또는 동거)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 외국인 남성 혹은 여성이 자국에서 결혼 후 단독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리형 가정(일정기간 한국에서 거주 후 가족을 불러들임)
새터민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때문에 인간은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다. 특히 오늘날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는 인간 상호간의 의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간의 삶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자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인의 생활영역 안에 있는 주요한 타자들은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인은 주로 연관성 있는 주요 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를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된 문화는 하나의 언어적 범주로 묶여 그 속성이 규정된다. 이와 같은 범주화는 타문화와 자문화를 구분하는 하나의 인식적 틀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각각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인식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적 틀은 대부분의 경우 인지, 감정, 그리고 동기부여를 포함한 개인적 경험의 본질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Markus and Kitayama, 1991).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문화 간의 상호공존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영역이다. 특히 대상에 대해 가지는 각기 다른 인식적 틀은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의 역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가 가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는 행위는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인식이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무엇인지 한정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즉,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고려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감각기관을 통해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읽고, 느끼면서 정보

를 습득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습득된 정보는 또 다른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가진다면 판단기준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인간은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활용해 주입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주로 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식별하고 인지하여 스스로 개념화하는 의식적인 활동”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의 틀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되고 공유되어진다. 이 때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가진 인식에서는 일반화될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 나타나며,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인식이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수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등은 개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다양화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그 기준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서운석, 2010: 12). 그러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사회적 인식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해 Adolphs(2001)는 사회적 인식을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융통성 있게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즉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의와 사회 내 공통된 문화를 수용하고 사용하는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인식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Young and Sneed(2005)은 다문화의 인식을 사정(assessment)하기 위한 요소로서 공감력, 수용성, 사회적 행동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의 공감력은 공감과 감사 혹은 우호적인 인식, 섬세한 자각 또는 즐거움의 행위이며, 긍정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포함한다. 수용성이란 진리와 가치에 따른 개인적 헌신을 포함하는 수용적인 행동, 허용적인 자세, 용인성, 신념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행동은 공감과 수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경애(2010: 23)는 다문화의 인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연구자의 신념을 투사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가치 중립적이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령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식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반응의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적절한 인식은 사회적 신호에 대한 인지과정과 동기, 감정 그리고 적응된 행동을 연결시키는 신경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사회적 인식은 기억, 주의력, 동기, 감정 등 행동적 반응을 조절하는 다양한 과정과 연관됨으로써 자동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이끈다(Adolphs, 2001).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대상에 대해 각자가 나타내는 생물학적 반응으로부터 얻어낸 공통 속성에 가까워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태도나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행위의 질과 양에 대한 수준으로서의 객관적인 분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앞서 피력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필자가 정의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지역사회 내 각 구성원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들 중 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비교적 공통된 성향을 말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로 표출될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 안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인종적 고정관념 등의 개인적 가치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원숙연·박진경, 2009a). 이미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음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인 특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등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변수들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갑석(2009)의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종교, 학력에 따른 6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미선(2010)의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다문화 가정 연수 참여 경험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세 이하인 집단과 43세 이상인 집단 간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원숙연·박진경(2009)은 다문화에 대한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사회적 다양성 및 다문화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고, 차별 및 배제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운석(2010)의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현황” 연구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수용 인식에 대한 연령대별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60대 이상과 5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황정미(2010)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장태한(2001)의 “한국대학생의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타 인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으며, 특히 서구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항구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조윤주(2010)의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분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성별, 연령, 혼인형태, 학력, 종교, 혼인형태, 거주형태 등 총 8가지의 개인적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문화적 정체성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주로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구분은 혈통적-문화적 측면의 요소와 정치적-법적 측면의 요소로 나뉜다. 즉 조사대상자가 정치적-법적 요소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우 타인종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의 다문화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최현(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국민정체성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정치적-법적 측면을 중시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혈통적-문화적 요인(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등)과 정치적-법적 요인(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한국국적을 갖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등)으로 나누어 질문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과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었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편차도 가장 낮아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 :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에서 출생	3.34	0.71
2	아버지가 한국인	3.43	0.67
3	어머니가 한국인	3.41	0.68
4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 거주	3.07	0.81
5	한국의 문화적 전통 계승	3.30	0.68
6	한국어 능력	3.48	0.63
7	한국의 정치제도 법 존중	3.36	0.70
8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51	0.62
9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47	0.61
10	한국 발전에 기여	3.30	0.71

* 출처 : 최현(2007)

이는 한국인들이 국민정체성에서 혈통적-문화적 요인보다 정치적-법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혈통적-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단일민족과 동일한 혈통을 중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 연구결과는 정치적-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현(2007)은 이와 유사한 척도를 가지고 2003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와 비교했는데, 비교결과 두 개의 연구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과 비교하여 지역사회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실천적 행위가 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또 다른 흐름은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다. 양계민(2009)은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민족정체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은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단일민족정체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긍정성에 대해 문화민족 정체성은 정적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 정체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민족 정체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엽(2010)은 “일반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친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국가정체성 및 인종선호도를 조사하여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많은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친구들을 낮게 평가하고 차별하고 있으며,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일민족 사고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황정미(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

족 동질성에 대한 애착이 전반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림(2010)의 연구에서 초등 교사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민족을 추구하는 인식을 가진 집단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 임미선(2010)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민족을 선호할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일반시민들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필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과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 다문화 접촉경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취득한 정보의 양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습득은 주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때로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적 접촉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접촉경험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접촉경험을 통한 정보가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접촉경험 대한 연구결과가 몇 가지 도출되었다.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난영(2008)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접촉경험 보다는 간접 접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친밀감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윤희(2010)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행동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직·간접적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과 정보가 조사대상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영(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국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윤인성(2010)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도 접촉경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디어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임도경·김창숙(2011)의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권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성향이 대부분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을 대학생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외국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하경애(2010)의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경험은 외국문화 접촉, 미디어 속 다문화 가정 경험, 다문화 가정 접촉, 다문화 교육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국인 접촉 경험이 다문화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인터넷, 방송, 신문, 영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다문화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친척 중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 경험은 다문화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긍정성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접촉이론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접촉경험을 대면적인 부분과 비대면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대면적인 접촉경험은

다문화 가정 또는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친구로 지내는 다문화 가정의 수, 외국문화에 대한 노출경험 등을 의미하며, 비대면적인 접촉경험은 다문화교육 수강, 이웃 내 다문가정 유무, 각종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정보습득 유무를 나타낸다.

3. 다문화 관련 주요이론

1) 다문화 수용성 관련 이론

다문화 가정이라는 소수집단과 지역주민이라는 다수 토착집단의 만남은 집단역동을 통해 융화되어 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이론들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적 틀을 제공한다. 때문에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다문화를 바라볼 것인가는 다문화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필자는 기존에 논의된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 다문화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많이 거론된 이론 중 먼저 살펴볼 이론은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이다. 동화이론은 소수인종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별적 변화과정을 통해 정착한 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문화의 우월성으로 문화적 우열관계가 성립되고 우월한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를 흡수·병합한다고 보는 것이 동화이론이다(한승준, 2008).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또 다른 이론은 용광로이론(melting pot theory)이다. 용광로이론은 사람사이의 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데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수집단 혹은 사회 주류집단 등이 만들어 둔 기준과 틀에 알맞은 형태로 후기 이주문화가 용광로의 쇠물처럼 녹아드는 동화를 의미한다. 즉, 이 이론은 소수집단인 이민자들이 다수집단이라는 커다란 주류사회 속으로

녹아서 융화된다고 본다(박대식·최경은, 2008).

앞서 설명한 두 이론들은 주로 소수집단의 문화가 다수집단의 문화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 이론들은 다문화론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정립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다문화 가정이 그들이 이주해 간 사회 속에서 가치있는 존재로서 올바르게 인정받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인종·민족의 문화가 어느 한 문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해가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인식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부합한 이론이 바로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이론이다. 다원주의 이론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그 사회에 적응해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 문화다원주의 이론은 샐러드 보울(salad bowl theory) 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서로 공존하며 각자가 가진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곧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개별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통합을 의미한다(최무현, 2008). 그렇기 때문에 문화다원주의는 개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복수의 문화들이 상호 고유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교류한다는 현상을 인식하는 개념이다(김의수, 1999). 즉,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한 상태에서 상호공존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다원주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으로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관점이 바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다문화주의는 앞서 설명한 문화다원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문화 다원적 현상, 즉 다양한 인종·문화·이념·종교·젠더 등과 같은 문화적 단위들의 공존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이나 태도의 경향을 말한다. 특히 오늘날 다문화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인종적 다양

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다문화주의 주제는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단위에
서 심리, 문화, 역사 등의 다차원적인 인식론적 주제로 연결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말 서구사회의 시민권 운동을 기폭
제로 1970년대 호주의 이민자개발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더불어 캐나다 퀘벡주
분리독립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송재룡, 2009: 84; 김영
옥, 2007: 137).

이후 다문화주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급증하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활발히 논의됐으며, 최근 우리나라
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었다(원숙연·박진경, 2009b:
866; 김영옥, 2007: 137).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인식적, 규범적
담론의 형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0년대
에는 서유럽의 다민족·다인종·다문화 국가들에서 소수인종 및 소수문화집단들의
시민적 권리와 정체성 인정에 관한 논쟁의 시작됐다(유문무, 2010: 84; 송재룡,
2009: 84). 이와 함께 전 세계 곳곳에 잠재해 있던 소수민족과 원주민들의 존재와
더불어 그들이 가진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인정 주장들이 표면위로 드러나게 되
었다. 한국사회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
자, 새터민 등 다문화 측면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송재룡, 2009: 84). 특히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지배 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
식하며,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하
는데 초점을 둔다. 때문에 다문화주의에서는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정상준, 2003: 14). 이처럼 개념상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들이 나뉠대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공
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며,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문화가 가
진 고유한 가치를 규범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송재룡, 2009: 83).

무엇보다 다문화주의는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둔다. 언어, 문화, 종교, 생활양식 등의 차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을 유발하여 차별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구조적 차별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문화적 소수자의 이탈을 촉진시키며, 나아가 결국 소수인종문제, 민족분쟁, 사회적 불협화음, 범죄, 사회불만세력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존과 공생을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적인 시각으로 구조적 분열을 예방해야 한다. 이렇게 타문화, 타언어가 존중되면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민족 등도 자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정립시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게 된다. 결국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의 보장,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간의 차별극복, 사회통합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천되고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집단의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갈등을 심화시켜 문화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여론 역시 존재한다(Banting and Kymlicka, 2003).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공존해 나아가야 할 관계로 보고 그들이 가진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인식적 틀 확장에 다문화주의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인식적 틀을 염두에 두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상호 협조를 통해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민족 정체성과 자민족 중심주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러 과제들 중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한민족’이라는 동일성

때문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 연구원이 실시한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한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62.3%로 2005년 조사의 52.9%보다 크게 증가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이내영, 2010).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직도 우리사회의 민족정체성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하나의 객체보다 ‘우리’라는 범주 안에서 안정성을 찾는다. 이만큼 한국인은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다문화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왜냐하면 다문화 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통일성에 기초한 하나의 정체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김현수, 2010). 따라서 한국사회가 가진 ‘우리’라는 동일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정체성(identity)이란 용어에는 이미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 사회의 정체성과 그 속에 살아가는 민족의 정체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진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 짓는데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사회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과 타자를 이해할 때 각자 다른 개별 주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속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정형화하는 것이다(최선헌 외 2003).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식을 기반으로 하며,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공통의 의식은 그 사회가 가지는 특수한 가치체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형성된 가치체계는 다른 집단을 바라보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Turner, 2010).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속한 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진다. 이로 인해 집단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감정들은 사회적 행위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인식적 틀을 탐구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이 가지는 민족정체성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사회정체성의 한 구성 요소로서 정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Phinney, 1990). 다만 민족정체성은 Tajfel(1981)에 의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와 결부되어있는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함께 공유된 가치와 감정의 중요성을 그 사람이 가진 지식적 판단에 의해 이끌어낸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되었다. 사회정체성의 특성과 민족정체성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필자가 규정한 “민족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집단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감정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자기 개념화한 생각 혹은 지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사회정체성의 하위 영역인 만큼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공통된 의식과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최근 최한나·안현의(2010)는 한국인에게 있어 민족정체성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민족정체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민족정체성이 한국인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렇듯 민족정체성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민족정체성에도 부정적인 면이 항상 존재한다.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배타성 혹은 자민족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주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개념으로 묘사된다.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논의할 때 더불어 함께 논의되는 개념이 바로 자민족중심주의이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중심에 있고, 자신의 집단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용어의 고전적 개념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자긍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우월함을 자랑으로 삼으며,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외부인들을 경멸적으로 바라본다는 Sumner(1906)의 정의에서 출발했다(황은지, 2011; Tajfel, 1982).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자신과 다른 집단은 배척하고 동일한 집단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지닌다(전경숙·박혜정, 2005). 따라서 자민족중심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질적인 인지능력을 포함하는 사고 활동의 소산이며, 전형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애의 시각을 포함하는 태도와 행위의 보편적인 행동양식이다(Hammond and Axelrod, 2006).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 집단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는 통상적으로 인종적 배제주의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다문화의 수용가능성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윤상우·김상돈 2010; 양계민, 2009; 윤인진·송영호, 2008). 실제 양계민(2009)연구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윤상우·김상돈(2010)의 연구는 자민족중심주의가 인종적 배제주의로 이어짐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처럼 정체성은 다문화 수용과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소수집단인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3) 접촉이론

사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정보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보는 주로 접촉을 통한 경험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는 인식적 틀은 개인의 접촉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경험이 다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접촉경험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접촉이론(contact theory)이다. 접촉이론은 동일한 환경 안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에 관해 설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론으로 다민족,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접촉이론은 인종·민족 사이의 접촉경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Allport(1954)에 의해 주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가 주장한 접촉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편견을 쫓아내기 위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접촉은 우연한 만남보다 진정한 관계형성을 위해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특히 개인들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은 그들 스스로를 동일한 사회적 신분으로 여기게 하고 편견의 풍토를 무너뜨린다(Krapp, 2004).

하지만 사실상 인간관계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Allport(1954)는 서로 다른 집단 상호간에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편견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사이의 편견적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접촉상황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했다. 첫째는 집단 상호간의 접촉상황에 있어서 다른 집단 간의 동등한 지위(equal status)를 갖는 것이고, 다음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공통의 목적들(common goals)을 공유해야 하며, 세 번째로 집단 간의 상호협력(intergroup cooperation)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위와 법 혹은 관습에 대한 지지(the support of authorities, law, or

custom)가 있어야 한다. 집단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집단 간의 접촉 상황에 있어서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경은 2010; Pettigrew and Tropp, 2006).

이렇듯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 직접적인 경험, 자기관여 수준 등은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의미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그 대상과 관련한 직접경험이 많을수록, 자신과 직접 연관된 대상일수록 그것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과의 유의미한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이윤희, 2010). 실제 박윤경(2007)은 다문화 접촉 경험이 예비 초등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인식 및 타문화 이해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접촉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참여관찰과 면접을 병행하여 실험내용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및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4) 사회적 거리감

주로 사회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종,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는 개념이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이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 Park가 독일의 사회학자 Simmel의 논점으로부터 이끌어온 정의이다. Simmel은 집단 구성원들이 개인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연구했으며, Park에 의해 ‘개인 사이의 거리’로서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이 발전하였다(윤인진 외, 2010; 인태정, 2009; 황정미 외, 2007). 이후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인종, 민족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척도가 개발되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Bogadus social distance scale)이다. 보

가더스의 척도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감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해 얼마만큼 거리감을 느끼는지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척도의 구성은 결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자발성을 묻는 방식으로 응답자가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Babbie, 2008). 이때 사용된 7개 항목은 각각 위계적인 차이와 순서를 갖는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 구성되어, 상위항목에 찬성한다면 그 하위 항목들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명진 외, 2010; Parrillo and Donoghue, 2005).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등장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종, 민족, 종교, 성, 직업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 간의 편견, 차별,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었다(유인진 외, 2010). 특히 Westie(1952)는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 차원과 관련해서 4가지의 하위 차원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 하위 차원들은 ‘거주의 위치에 따라 측정 되는 거리감’, ‘사회 내 권력의 위치에 따라서 측정되는 거리감’, ‘개인 간의 신체적인 교류의 허용정도에 따라서 측정되는 육체적 거리감’, ‘개인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태도의 대상에 대한 친근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사회적 거리감’으로 나눌 수 있다(유난영, 2008).

최근 연구들에서는 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보가더스의 기본 척도를 변형시키거나 일부분만을 추출해 사용되기도 한다(홍미연, 2011; 윤인진 외, 2010; 전영자·전예화, 2010; 김상학, 2004). 특히 이명진 외(2010: 66)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가더스 척도는 외국인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단계별 문항들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감을 측정하기 때문에 감정을 호(好), 불호(不好)의 연속선상 어느 썸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게 되고, 그 결과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주로 감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타인에 대한 인식이 지닌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했다. 허나 필자는 오히려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척도의 주된 역할이라 본다.

인간의 의식세계는 함부로 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 다양하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의식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주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척도의 역할이다. 물론 모든 현상들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할 수 없다. 때문에 척도는 그 쓰임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지나치게 범주화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척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척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임도경·김창숙, 2011). 이와 관련해 전영자·전예화(2010)는 한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은 그 집단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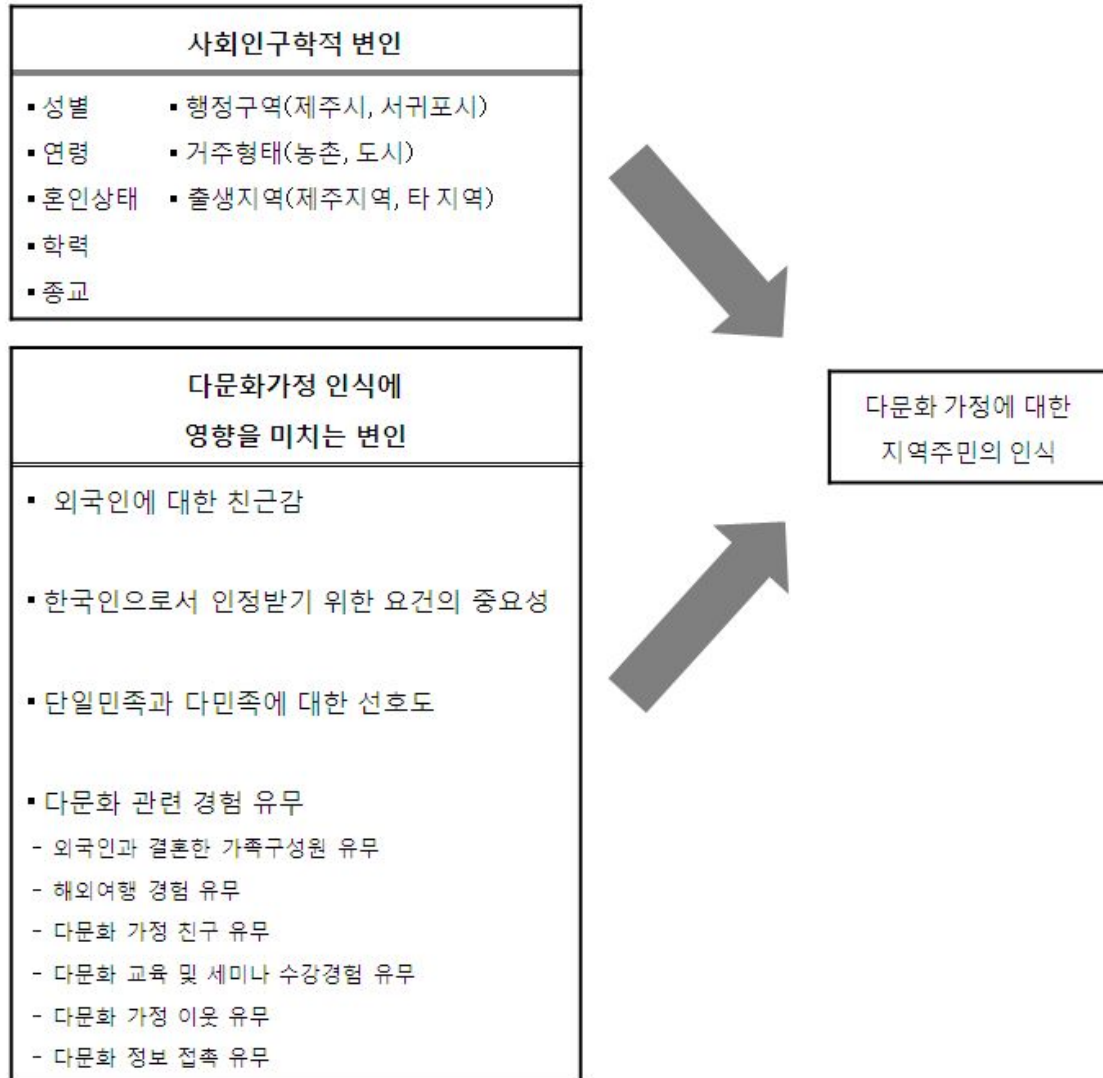
4. 연구문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제주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시민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연

구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특성(행정구역, 성별, 연령, 혼인형태, 학력, 종교, 거주지형태, 출생지역)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 3-1.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3-2.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3-3.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는 있는가?
 - 3-4.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4.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5. 연구모형



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른 문화를 가진 모든 시민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60대 사이의 성인 남녀 총 442,709명(제주시 324,217명, 서귀포시 118,49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지역별 인구비율, 해당 지역의 성비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 층화표집으로 최종 추출하였다. 다만 조사의 여건상 나뉜 각 하위집단에 대해 단순 무작위표집 또는 계통표집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본추출에 있어서 완전한 확률 표집이 되지 못하였지만 확률표집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연령대 및 지역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연령별 비율은 각 20.0% 내외로 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결과 중 20세 이상 인구(제주시 73.2%, 서귀포시 26.8%)의 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250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31까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출된 3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50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50명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자료로써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23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으로서의 인정요건, 다문화 관련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총 8문항으로 행정구역, 성별, 연령, 혼인형태, 학력, 종교, 거주지역 형태(농촌, 도시), 제주출생여부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은 별도로 조사된 비율을 계산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포함시켰다.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다문화 가정 인식’은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부여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⁵⁾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전환하여 사용한 홍미연

5) 원래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해 결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사용되는 7개의 항목은 위계와 단계를 갖는 거트만식 척도(Guttman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척도는 상위문항에 찬성하면 하위 문항들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누적성을 전제로 한다(김상학, 2004). 하지만 보가더스 척도는 문항 사이의 거리를 등간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이는 문항과 보가더스 척도에서 전제하고 있는 항목 간 위계성이 민족성에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사회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홍미연 2011; 이명진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보가더스 척도를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변형시켜 항목별 평균을 구했으며, 집단 간 차이와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과정에서는 종속변수의 서열성과 누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척도를 거트만식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2011)과 윤인진 외(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는 결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총 7가지 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특히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가에 따라 '매우 찬성' 5점, '대체로 찬성' 4점, '보통' 3점, '대체로 반대' 2점, '매우 반대' 1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즉,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1로 나타났다.

3)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본 연구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제주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외국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낸다.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척도는 한국사회에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외국인유형을 지역과 인종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이 척도는 각 인종과 민족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선택적 차별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서양인, 동양인, 동남아시아인 등 외국인 유형에 따라 응답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각 유형별 외국인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에 따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싶다' 5점, '친하게 지내고 싶다' 4점, '보통이다' 3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2점, '절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1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해 친근감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3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현(2007), 원숙연·박진경(2009) 등의 여러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척도를 연구의 특성 맞게 일부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에서 출생,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한 것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조사대상자가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정치적-법적 측면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조사대상자가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시 하며, 그 중요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설명해 준다. 인정요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어떤 요인들이 국민정체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나타내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2로 나타났다.

5)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다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는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이 척도는 조사대상자가 단일민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다민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지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김갑석(2009)이 개발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척도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연구한 임미선(2010)과 한혜림(2010)의 연구에서도 이미 사용된바 있다.

척도의 문항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민족 유지’, ‘단일민족과 국가 경쟁력’, ‘다양한 민족과 국가 결속력’, ‘다양한 문화의 공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점 리커트(Likert)식 척도로 응답자의 생각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민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 4개의 문항 중 1,2,3번 문항을 역점수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18로 나타났다.

6) 다문화 경험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경험’은 조사대상자가 다문화에 대해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경험의 유무를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다문화 관련 경험들을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접촉 경험을 대면적인 부분과 비대면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대면적인 접촉경험은 가족 혹은 친척 중 다문화 가정 유무, 해외여행 경험, 친구로 지내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유무 등을 의미하며, 주로 다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경험을 나타낸다. 비대면적인 접촉경험은 다문화교육 수강, 이웃 내 다문화가정 유무, 각종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정보습득 유무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다문화와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경험을 의미한다.

<표 3> 측정 도구의 구성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인	7	
	다문화 경험	6	
다문화 가정 인식		7	.891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5	.913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0	.822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4	.618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지역별로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도 지역이 75.1%로 서귀포시 지역 2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 48.9%, 여자 51.1%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나 비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은 20대(24.5%), 30대(21.1%), 40대(20.3%), 50대(18.1%), 60대(1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인형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6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이 30.8%로 높게 나타나 기혼과 미혼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초대졸이상인 72.2%로 27.8%의 비율을 보인 고졸이상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없음(38.4%), 천주교(23.2%), 불교(22.4%), 개신교(13.9%), 기타종교(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 형태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83.5%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5%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주출생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이상인 73.0%가 제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27.0%가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중 외국인과 결혼한 구성원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다수(91.6%)가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8.4%만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여행 경험유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7% 즉, 절반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4.3%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친구유무는 8.0%만이 다문화 가정 친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대부분(92.0%)은 다문화 가정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세미나 수강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18.1%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81.9%)은 다문화관련 교육 및 세미나 수강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이웃 유무는 조사대상자의 14.8%가 주위에 다문화 가정 이웃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5.2%가 자신의 거주지에 다문화 가정 이웃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문화와 관련된 정보의 습득 유무는 절반이상인 62.9%가 다문화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7.1%가 다문화관련 정보를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응답자의 상당수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형태의 경우 기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초대졸이상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제주지역 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 다문화 가정 친구, 다문화 가정 이웃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절반이상이 해외여행 경험과 다문화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37)

문항 및 변수		구분	n(%)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지역(행정구역)	제주시	178(75.1)
		서귀포시	59(24.9)
	성별	남자	116(48.9)
		여자	121(51.1)
	연령	20대	58(24.5)
		30대	50(21.1)
		40대	48(20.3)
		50대	43(18.1)
		60대 이상	38(16.0)
	혼인형태	미혼	73(30.8)
		기혼	149(62.9)
		이혼	6(2.5)
		사별	9(3.8)
	학력	고졸이하	66(27.8)
초대졸이상		171(72.2)	
종교	불교	53(22.4)	
	개신교(기독교)	33(13.9)	
	천주교	55(23.2)	
	기타	5(2.1)	
	종교없음	91(38.4)	
거주형태	농촌(읍,면)	39(16.5)	
	도시(동)	198(83.5)	
제주출생여부	예	173(73.0)	
	아니오	64(27.0)	
다 문 화 경 험	가족 중 국제결혼 가족 유무	있음	20(8.4)
		없음	217(91.6)
	해외여행 경험유무	있음	132(55.7)
		없음	105(44.3)
	다문화 가정 친구유무	있음	19(8.0)
		없음	218(92.0)
	다문화교육 및 세미나 수강경험	있음	43(18.1)
		없음	194(81.9)
	다문화 가정 이웃유무	있음	35(14.8)
		없음	202(85.2)
다문화 정보습득 유무	있음	149(62.9)	
	없음	88(37.1)	

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다문화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관련 변인들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평균차이와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인으로서 사회적 거리감은 항목간의 서열성과 누적성을 부여하기 위해 거트만식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거트만식 척도로 전환하기 위해 박윤경(200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박윤경(2003)은 기존 척도를 거트만식 척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예측되는 이상적 응답을 추측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Goodenough-Edwards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감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즉, <표 5>의 혼합유형에서처럼 일관되지 못한 응답으로 인해 지수점수와 척도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오차가 발생한 유형에서 관계의 강도가 비교적 강한 부분을 수용했다면 강도가 낮은 문항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찬성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혼합유형의 마지막 유형처럼 오차가 발생하여 일관성이 없는 응답이 나왔다면 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표 5> 사회적 거리감 척도유형과 혼합유형에 부여된 지수 및 척도점수

	알고 지냄	직장 동료	동호회	이웃	친한 친구	내 배우자	자녀 배우자	사례수	지수 점수	척도 점수
척도 유형	+	+	+	+	+	+	+	101	7	7
	+	+	+	+	+	+	-	14	6	6
	+	+	+	+	+	-	-	66	5	5
	+	+	+	+	-	-	-	6	4	4
	+	+	+	-	-	-	-	4	3	3
	+	-	-	-	-	-	-	3	1	1
	-	-	-	-	-	-	-	4	0	0
혼합 유형	+	+	+	+	+	-	+	13	6	6
	-	+	+	+	+	+	-	1	5	6
	+	-	+	+	+	+	+	1	6	7
	+	+	+	+	-	+	+	2	6	7
	+	+	-	+	+	+	+	1	6	7
	+	+	-	+	-	-	-	1	3	2
	+	-	+	+	-	+	+	1	5	5
	+	-	+	+	-	-	-	1	3	4
	+	-	+	-	+	-	-	2	3	4
	-	+	+	-	+	+	+	1	5	7
	-	+	+	+	+	-	-	1	4	5
	-	+	+	+	+	+	+	1	6	7
	-	-	-	+	+	+	+	1	4	5
	-	+	-	+	+	+	+	1	5	6
	-	+	+	+	+	-	+	1	5	6
	+	+	+	+	-	+	+	1	6	7
	+	+	+	-	-	+	+	1	5	6
	-	+	+	-	-	-	-	1	2	2
	+	-	-	+	-	-	-	1	2	2
	+	+	-	-	+	+	+	3	5	5
+	-	-	-	+	-	-	1	2	1	
+	+	+	-	+	-	-	1	4	3	
-	-	-	+	-	-	-	1	1	0	
전체								237		

또한 거트만 척도와 일치성과 척도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윤경 (2003)의 연구에서 채용하여 사용한 누적척도 재생계수(Coefficient of Reproducibility : CR)와 최소한계재생도(Minimal Marginal Reproducibility : MMR)점수⁶⁾를 구하였다. <계산식 1>과 <계산식 2>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응답자의 응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재생도는 97.6%, 최소한계재생도는 0.787로 나타나 7개의 각 문항들에 점수를 부여하여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계산 식 1>

$$CR = 1 - \frac{\text{오차반응의 총수}}{\text{문항 수} \times \text{피험자의 수}}$$

$$CR = 1 - \frac{39}{7 \times 237}$$

$$CR = 1 - \frac{39}{1659}$$

$$CR = 1 - 0.0235$$

$$CR = 0.9765$$

<계산 식 2>

$$MMR = \frac{\text{각문항별높은빈도비율의 합}}{\text{문항 수}}$$

$$MMR = \frac{\frac{224}{237} + \frac{221}{237} + \frac{220}{237} + \frac{216}{237} + \frac{210}{237} + \frac{107}{237} + \frac{108}{237}}{7}$$

$$MMR = \frac{5.510}{7}$$

$$MMR = 0.787$$

6) 거트만이 제안한 재생계수(CR)는 관찰된 응답패턴과 예측된 이상적인 응답패턴 사이의 적합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 퍼센트이다. 즉, 이 계수는 척도에 대한 전반적 오차의 정도를 평가해 주는 방법으로서 문항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척도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계수는 90~95% 수준이다. 에드워드가 제안한 최소한계재생도(MMR)는 응답범주가 많을 경우 CR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수로서 0.8이하이면 척도 사용이 가능하다(McIver and Carmines, 1982; 박윤경, 2003에서 재인용).

제4장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변인들의 경향성

내 용	M(SD)
다문화 가정 인식	3.35(.721)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3.38(.799)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	3.06(.499)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3.02(.654)

먼저 다문화 가정 인식의 전체 평균은 <표 6>, 문항별 평균은 <표 6-1>과 같다. 다문화 가정 인식의 평균은 3.35점으로 1~5점 범위에서 중앙값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평균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과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은 각각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비교적 우연한 만남의 횟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냥 알고 지내는 것’에서부터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까지의 문항별 점수는 3.57점~3.69점 사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조사대상자와 밀접한 연관이 없을 때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2.64점)과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2.63점)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을 아직까지 자신의 가족구성원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종합해 보면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중립에 가깝고, 내가 알고 지내거나 내가 속한 직장, 동호회, 지역사회, 친구집단 등의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는 있지만 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6-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평균

내 용	M(SD)
그냥 알고 지내는 것	3.65(.786)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3.57(.824)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3.69(.835)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3.69(.871)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3.58(.952)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2.64(1.043)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2.63(1.129)

둘째,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1~5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의 전체 평균은 <표 6>, 문항별 평균은 <표 6-2>와 같다. 분석결

과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의 전체 평균이 3.38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주민들이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별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살펴본 결과 서양인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양인 중에서도 백인이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제주지역 주민들의 서구문화와 백인에 대한 친근감이 타문화와 인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이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남아시아(3.30), 중국, 조선족(3.2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친근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제주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적·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종집단 보다 비교적 과학기술적·경제적 수준이 높은 인종집단에 대해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제주지역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차별주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평균

내 용	M(SD)
서양인(백인)	3.61(.869)
서양인(흑인)	3.39(.903)
동양인(일본)	3.31(1.043)
동양인(중국, 조선족)	3.28(.951)
동남아시아인	3.30(.854)

셋째,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의 중요성’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은 1~4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정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중요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표 6>, 문항별 평균은 <표 6-3>과 같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의 중요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6점으로 제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중요성은 매우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 주민들은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중요성에 있어서 편견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주민들의 국민정체성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정치적-법적 측면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별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중요성을 비교해 본 결과 혈통적-문화적 요인 즉,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2.83점~2.93점 범위 내에서 2점대의 비교적 낮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법적 요인인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혈통적-문화적 요인들에 비해 높은 3점대의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여러 요건들 중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점수도 가장 낮게 나타나 응답자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 최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주민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인정요건들 중 정치적-법적 요인들을 중요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주민들의 국민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한국인으로서의 인정요건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문항들간의 점수를 비교할 때 응답자들은 혈통적-문화적 요인들보다 정치적-법적 요인들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는 곧 제주지역 주민들이 타인종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정치적-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같은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3>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 평균

내 용	M(SD)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91(.928)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2.93(.913)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2.83(.897)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88(.835)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3.09(.784)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25(.732)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13(.748)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53(.571)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20(.791)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2.88(.801)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경향성을 살펴 보았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는 1~5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민족을 선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단일민족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전체 평균은 <표 6>, 문항별 평균은 <표 6-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은 3.02점으로 중립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평균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높지 않지만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3.28점으로 중간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2.85점으로 중립에 가까운 편이지만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제주지역 주민들이 다민족보다는 단일민족을 좀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이 2.42점으로 가장 낮아 아직까지 제주지역에서는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평균

내 용	M(SD)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2(.965)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85(.997)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8(.974)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52(.890)

조사대상자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제주지역 주민들은 도내 다문화 가정의 증가, 관광인구의 증가, 국제자유도 선정 등 최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이 단일민족국가 혹은 단일민족혈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비교적 단일민족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틀 형성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리적 한계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몽골의 100년 지배, 중앙 양반들의 유배, 일본의 침략, 4·3사건, 6.25전쟁 등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여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밝히기 위한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동일집단군을 살펴보기 위한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은 1집단을 a로, 2집단을 b로 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 ($F=15.498$, $P<.001$), 혼인형태($F=8.816$, $P<.001$), 학력($t=-3.654$, $P<.001$), 거주형태 ($t=-2.112$, $p<.05$), 출생지($t=-2.303$, $p<.05$)로 나타났으며, 행정구역, 성별, 종교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집단과 60대 이하인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혼인형태에 따라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혼인형태 중 부부간에 사별한 집단이 다문화 가정 수용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 인간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주로 노년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필연적 사건임을 감안할 때 60대의 높은 연령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취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혼의 경우 기혼 혹은 이혼의 경우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미혼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낮고, 단독으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다문화 가정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기혼 혹은 이혼의

경우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과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의 집단보다 학력이 높은 초대졸 이상의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로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집단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집단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출생지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출생한 집단이 타 지역에서 출생한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일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는 동안 형성된 것으로 제주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연령이 높은 집단, 혼인집단, 학력이 낮은 집단, 농촌에서 거주하는 집단, 제주에서 출생한 집단 등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 미혼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도시에서 거주하는 집단,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태어난 집단은 다문화 가정 인식에 있어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혼인형태, 학력, 거주지 형태, 출생지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변인	구분	n	M(SD)	F(t)
행정구역	제주시	178	5.83(1.540)	1.659
	서귀포시	59	5.42(1.821)	
성별	남	116	5.72(1.466)	-.015
	여	121	5.73(1.761)	
연령	20대	58	6.26(.965) ^b	15.498 ^{***}
	30대	50	5.92(1.441) ^b	
	40대	48	5.96(1.383) ^b	
	50대	43	6.00(1.215) ^b	
	60대이상	38	4.05(2.217) ^a	
혼인형태	미혼	73	6.27(.932) ^b	8.816 ^{***}
	기혼	149	5.58(1.693) ^b	
	이혼	6	5.67(1.633) ^b	
	사별	9	3.67(2.646) ^a	
학력	고졸이하	66	4.98(2.145)	-3.654 ^{***}
	초대졸이상	171	6.01(1.260)	
종교	불교	53	5.36(1.962)	1.890
	개신교(기독교)	33	5.61(1.952)	
	천주교	55	6.18(1.056)	
	기타	5	6.00(1.414)	
	종교없음	91	5.69(1.525)	
거주지 형태	농촌(읍,면)	39	5.03(2.401)	-2.112 [*]
	도시(동)	198	5.86(1.384)	
출생지	제주출생	173	5.60(1.735)	-2.303 [*]
	타 지역출생	64	6.06(1.207)	

*p<.05, ***p<.001

3.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3-1.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평균을 친근감이 낮은 집단과 중간집단 그리고 친근감이 높은 집단으로 3분할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동일집단군을 살펴보기 위한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은 1집단을 a로, 2집단을 b로, 3집단을 c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문화 가정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모든 집단들 간의 평균치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다문화 가정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8>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변인	n	M(SD)	F
친근감 낮음	63	4.63(2.195) ^a	28.183***
중간	98	5.84(1.249) ^b	
친근감 높음	76	6.49(.808) ^c	

***p<.001

3-2.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을 인정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집단과 중간인 집단 그리고 인정요건이 중요하다는 집단으로 3분할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집단군을 살펴보기 위한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은 1집단을 a로, 2집단을 b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집단 또는 중간집단이 인정요건이 중요하다는 집단 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정요건을 중요하지 않는 집단과 중간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요건을 중요시 하지 않는 집단이 인정요건을 중요시 하는 집단 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들의 중요성이 약해질 수록 제주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력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9> 한국인으로서 인정요건의 중요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변 인	n	M(SD)	F
인정요건 중요하지 않음	98	6.10(1.214) ^b	6.018**
중간	127	5.53(1.740) ^{ab}	
인정요건 중요함	12	4.75(2.417) ^a	

**p<.01

3-3.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들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분석에 앞서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집단과 중립적인 집단 그리고 다민족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3분할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집단 간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각 초등학교 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던 한혜림(2010)과 임미선(2010)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한혜림(2010)과 임미선(2010)의 연구에서는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집단과 다민족을 선호하는 집단 간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민족을 선호하는 집단과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집단 간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차이 내에서 평균적으로 다민족을 선호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측정을 위한 도구에 있어서 독립변수는 한혜림(2010)과 임미선(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했으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속변수의 척도가 다르므로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원인을 차 후 새로운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집단 간 민족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응답자의 사례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제주지역 주민들은 다민족 보다는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주지역 주민들은 다민족 보다는 단일민족을 고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곧

공동체를 중요시 하는 제주사회의 폐쇄성과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단일민족과 다민족 선호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변 인	n	M(SD)	F
단일민족선호	94	5.52(1.727)	1.353
중립	119	5.83(1.633)	
다민족선호	24	6.00(.933)	

3-4.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다문화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다문화 경험에 관한 변인은 해외여행 경험 유무($t=3.643, p<.001$),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 수강경험($t=3.827, p<.001$), 다문화 정보 접촉 경험($t=2.340, p<.05$)이다. 반면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 유무, 다문화 가정 친구 유무, 다문화 가정 이웃 유무는 다문화 가정 인식에 있어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은 다문화 가정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 수강경험에 있어서는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를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향후 다문화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문화 인식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다문화 가정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문화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다문화 관련 정보를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형성에 있어 정보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곧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접촉경험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촉경험을 대면적인 측면과 비대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을 때, 대면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해외여행을 통해 다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며, 비대면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 11> 다문화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변인	구분	n	M(SD)	T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 유무	있음	20	6.05(1.146)	.935
	없음	217	5.70(1.655)	
해외여행 경험 유무	있음	132	6.08(1.196)	3.643***
	없음	105	5.29(1.950)	
다문화 가정 친구 유무	있음	19	5.95(1.026)	.621
	없음	218	5.71(1.662)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 수강경험	있음	43	6.28(.826)	3.827***
	없음	194	5.60(1.725)	
다문화 가정 이웃 유무	있음	35	5.86(1.417)	.519
	없음	202	5.70(1.654)	
다문화 정보 접촉 경험	있음	149	5.93(1.313)	2.340*
	없음	88	5.38(1.996)	

*p<.05, ***p<.001

4.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들의 다문화 경험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구성된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각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을 한 결과 계수가 1.597로 2에 가까워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관련 변인들이 연속 변인인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명목변수와 서열변수의 경우는 더미화를 통해서 회귀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호화 하였다. 특히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로만

회귀모형을 구성하기위해 단계선택방식을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단계입력방식에 의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 중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연령,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해외여행 경험 유무가 회귀식에 투입되었다(변수진입기준: .05, 변수제거기준: .1). 그러나 나머지 독립변수들 중 행정구역, 성별, 혼인형태, 학력, 종교, 거주지 형태(농촌, 도시), 출생지역(제주지역, 타 지역), 국제결혼 가족구성원 유무, 다문화 가정 친구유무,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 수강유무, 다문화 가정 이웃 유무, 다문화 정보 습득 경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는 종속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이 낮아 회귀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모형1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회귀식에 가장먼저 투입되었으며, 모형2에서는 연령이, 모형3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이, 모형4에서는 해외여행 경험 유무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각 모형에서의 R²값은 .145(모형1), .209(모형2), .243(모형3), .272(모형4)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모형은 14.5%(모형1), 20.9%(모형2), 24.3%(모형3), 27.2%(모형4)의 설명력을 갖는다. 또한 모형별 R²값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모형2에서는 .063, 모형3에서는 .035, 모형4에서는 .029만큼 증가하였으며, <표 12>의 통계량 변화를 살펴볼 때 R²값의 증가량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독립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회귀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통계량 변화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F 변화량
1	.381 ^a	.145	.145	40.006	.000
2	.457 ^b	.209	.063	18.645	.000
3	.493 ^c	.243	.035	10.660	.001
4	.521 ^d	.272	.029	9.167	.003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의 단계선택방식에서 최종단계를 나타내는 모형4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beta=.248, t=4.140, p<.001$), 연령($\beta=-.202, t=-3.341, p<.01$),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beta=-.194, t=-3.221, p<.01$), 해외여행 경험 유무($\beta=.172, t=3.028,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연령,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해외여행 경험이 회귀식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러한 변인들이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 중 연령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은 부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과 해외여행 경험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체 변인 중 다문화 가정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령,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해외여행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분석의 첫 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먼저 투입되었으며, 설명력도 가장 높게 나타나 외국인에 대해 친근감을 많이 느낄수록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곧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젊은 층일수록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대마다 다른 성장배경 즉, 역사적 사건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다문화 가정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일민족적인 민족정체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별다른 인정요건 없이도 다문화 가정을 우리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오랫동안 견고하게 짜여진 우리 문화의 틀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문화가 토착문화에 편입되는 동화주의적인 시각과 이주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통합을 이루려는 다문화주의적인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순전히 그 지역사회 주민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여행의 주된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공간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해외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적 틀이 확장되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직·간

접적 접촉경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감소시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역의 해외여행객을 비롯한 입·출도인구 증가와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제주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과 이해의 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단순히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대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인정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친근감은 대개 의미있는 잦은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제거와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 일반 시민이 함께함으로써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주제를 다룰 때 연령별 인식의 차이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3> 독립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β)	
1	상수(Constant)	3.112	.425		7.328***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774	.122	.381	6.325***
2	상수(Constant)	4.453	.514		8.663***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626	.123	.309	5.098***
	연령	-.301	.070	-.261	-4.318***
3	상수(Constant)	6.511	.807		8.070***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553	.122	.273	4.516***
	연령	-.238	.071	-.207	-3.359**
	한국인으로서의 인정요건	-.648	.199	-.200	-3.265**
4	상수(Constant)	6.294	.796		7.905***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503	.121	.248	4.140***
	연령	-.233	.070	-.202	-3.341**
	한국인으로서의 인정요건	-.629	.195	-.194	-3.221**
	해외여행 경험 유무	.560	.185	.172	3.028**

p<.01, *p<.001

- | | |
|-------------------------|-------------------------|
| 1) 행정구역 : 0=서귀포시, 1=제주시 | 2) 성별 : 0=여자, 1=남자 |
| 3) 혼인형태 : 0=미혼, 1=기혼 | 4) 학력 : 0=고졸이하, 1=초대졸이상 |
| 5) 종교 : 0=종교없음, 1=종교있음 | 6) 거주형태 : 0=농촌, 1=도시 |
| 7) 출생지 : 0=타지역, 1=제주지역 | 8) 경험유무 : 0=없음, 1=있음 |

제5장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주지역 주민들은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들인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설정한 변인들 중 먼저 다문화 가정 인식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 인식의 경향성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3.35점으로 비교적 중립적이며, 평균점수가 중앙값(3점) 이상을 나타내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냥 알고 지내는 것에서부터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까지는 3점 이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과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는 2점 이하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을 조사대상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주지역 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가족 구성에 있어서 단일민족 혹은 단일혈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가 확산되고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슈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올바르게 자각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친근감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은 한국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적·경제적 수준이 높은 소위 선진국 시민으로 인식되는 서양인에 대해 친근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서양인 중에서도 흑인(m=3.39)보다는 백인(m=3.61)에게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적인 역사적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은 동남아시아인(m=3.30), 중국-조선족(m=3.28) 보다 일본인(m=3.31)에 조금 더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이는 결국 과학기술적·경제적 수준이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관련 변인들의 경향성 중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 혈통적-문화적 요인들보다 정치적-법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비율은 2점대의 비교적 낮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정치적-법적 요인인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혈통적-문화적 요인들에 비해 높은 3점대의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는 정치적-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 최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주민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라거나 한국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등의 혈통적-문화적 측면보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느끼거나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 등의 정치적-법적 요인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정치적-법적 요인들만 충족된다면 다문화가정을 같은 사회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스스로가 가지는 주관적 판단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스스로 한국인임을 느끼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서비스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노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다문화 관련 변인들의 경향성 중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한

국이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제주 사회가 오랜 시간 독립된 공간속에서 구축해 온 정체성과 강압적으로 밀려들어온 외부문화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반동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준비되지 않은 강압적인 변화는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것은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다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혜택이 양자 모두에게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간이라는 동일한 속성으로부터 출발해 상호 공존해야 하는 공통된 이유를 찾기 위해 지역 사회 스스로 끈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 미혼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 제주도외 지역에서 출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개인의 성장배경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성장배경이란 곧 조사대상자가 자라면서 겪어온 물리적 환경과 역사적 사건들뿐만 아니라 개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세대를 거쳐 전승된 문화적, 역사적 뿌리까지 포함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다문화 환경이 만들어지고 외부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긍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집단 역시 존재할 것이다. 보통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관련 변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

한 요건의 중요성,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 다문화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수적이며, 친근감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낌으로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서양인(백인), 동양인(일본) 등 과학기술적·경제적 선진국출신 외국인에 대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한국사회보다 과학기술적·경제적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출신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출신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정광중 외(2011: 187)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선택적 차별주의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올바르게 상호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중요시하는 집단일수록 다문화 가정을 한국인으로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건들 중 제주지역 주민들은 혈통적-문화적 측면 보다 정치적-법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만큼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치적-법적 요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력은 증가할 것이다.

계속하여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 간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응답 비율로 보면 다민족 보다는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아직까지 제주지역은 단일민족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국가정체성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62.3%가 ‘한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이내영, 2010). 어쩌면 현재까지 제주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권당문화⁷⁾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주의 권당문화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도우며 형성된 공동체의식의 긍정성과 학연·지연·혈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 부정성을 모두 가진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이러한 권당문화는 종종 제주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과의 연결고리가 생긴 외지인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일부로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권당문화이다.

권당문화를 중심으로 한 단일민족 혹은 제주사람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은 점점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에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문화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기존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권당문화는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대소사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인연이 닿는다면 얼마든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포용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당문화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는 혼란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가

7) 권당은 친척이나 인척이라는 뜻의 ‘권당(眷堂)’에서 유래한 제주의 방언이다. 제주의 권당은 민법에서 정의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권당의 개념은 다분히 포괄적이다. 즉 작게는 민법에서의 친족개념을 포함하지만 크게는 나를 중심으로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집단, 다문화 교육 및 세미나 수강 경험이 있는 집단, 다문화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비교적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경험적 측면을 대면적인 측면과 비대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을 때 대면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해외여행을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비대면적인 측면에서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즉, 다문화에 대한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대면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친구 혹은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 비대면적인 측면에서는 이웃 내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응답자와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적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친구 유무,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 유무, 이웃 내 다문화 가정 유무는 현재 제주지역의 인구비율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하더라도 비대면적 측면에서 교육 및 세미나를 수강한 경험이 매우 적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관련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입력방식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러 독립변인들 중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 연령,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해외여행 경험 유무만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독립변인들은 종속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이 낮아 회귀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즉, 모든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친근

감, 연령,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 해외여행 경험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 이 변인들이 매우 중요하는 것을 보여준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 중 연령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과 해외여행 경험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측해 보면 먼저 외국인에 대해 친근감을 많이 느낄수록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활동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대마다 다른 성장배경 즉, 역사적 사건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단일민족이라는 하나의 동질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일민족적인 민족정체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별다른 인정요건 없이도 다문화 가정을 우리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여행의 주된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공간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해외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적 틀이 확장되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접촉경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감소시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입·출도 인구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단순한 온정주의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호 이질적인 문화의 갈등요소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발전에 부합하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제주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적 틀을 기반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없애고 그들을 지역사회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다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인정노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인 시민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그것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최초로 연구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과정 및 결과는 추후 다문화와 관련된 제주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식연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아래 이 연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연구가 실시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의 여건상 표본추출 과정에서 완전한 확률표집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추출 방법의 보완 혹은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 다문화와 관련한 지역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특정집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문화와 연관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매우 한정시켜 설정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요인들과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연구에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올바르게 상호 공존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제주인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 제주지역 주민들이 단 일민족 혹은 단일혈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폐쇄

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이 다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주민들이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데 정치적-법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만큼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인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아직 다문화 가정을 지역사회의 일부로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외지인도 나와 인연이 닿는다면 얼마든지 지역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할 수 있는 권당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적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과 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경은. (2010). **학교다문화분위기 척도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권 승. (2009).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 담당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35-60.
- 김갑석. (2009).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 김동욱. (2004). **유아교사의 가족인식과 가족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1), 169-206.
- 김아영. (2006).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인식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연수 · 박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권, 269-298.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 김의수. (1999). 문화 다원주의와 21세기 인류의 철학적 지향. **시대와 철학**, 10(1), 158-187.
- 김주삼. (2007). 새터민 가족의 여가생활과 문화 : 경제적 활동을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 22(1), 57-74.

- 김진숙 · 이혁구 · 이근무. (2010).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연구 : 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30권, 136-166.
- 김현수. (2010). 다문화, 다인종사회에서의 정체성 문제. **신학사상**, 150권, 217-247.
- 나금실 · 김희재 · 최송식. (2010).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73-101.
- 문화관광부. (2010).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대식 · 최경은.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범식. (2008).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필리핀 미등록노동자 가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
- 박범식. (2008).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박윤경. (2003).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윤경. (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 초등 예비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147-183.
- 박재규. (2009).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 연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6집, 137-163.
- 법무부. (2010).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0년 12월 기준). www.moj.go.kr>정보마당>자료실>통계자료.(검색일 : 2011. 5. 10.)
- 서운석.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현황 :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1) 11-39.
- 서한나 · 안현의. (2010). 한국인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이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037-1052.

- 설동훈. (2006). 국민 민족 인증: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한국민족연구논집**, 41권, 74-194.
- 송재룡. (2009).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통권 35호, 79-105.
- 심우엽.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오진숙. (2009).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원숙연 · 박진경. (2009a).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201-224.
- 원숙연 · 박진경. (2009b).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65-879.
- 유난영.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 유문무. (2010).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다문화 담론 모색. **한국아시아학회지: 아시아연구** 13(2), 83-109.
- 유병규 · 정유훈. (2009).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 위한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주평**, 9(44), 통권373호, 1-16.
- 유철인. (1995).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제주사회론**. 375-397.
- 윤상우 · 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성. (2010).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윤인진 · 송영호. (2008).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2009년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 윤인진 · 송영호 · 김상돈 · 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이내영. (2010). **당당한 大韓民國, 초라한 大韓國民**, 동아일보, 2010년 12월 21일,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01221/33409840/1>(검색일 : 2011. 5. 10.)
- 이명진 · 최유정 ·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11(1), 63-85.
- 이영권. (2005).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옥자 · 김현경. (2007). 새터민 가족의 재통합을 위한 분투노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65-387.
- 이윤희. (2010).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이희옥. (2010). **시선과 관계 : 부안 지역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조사**. 석사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연구-부산 · 울산 · 경남지역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임도경 ·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

- 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5-34.
- 임미선. (2010).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장입숙. (2010).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247-270.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서울: 삼인출판사 99-113.
- 장혜련. (2009). 출륙금지와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98-326.
- 전경숙·박혜정. (2005). 자민족중심주의, 패션선도력의 관계 및 명품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1), 1498-1506.
- 전미경·김성희. (2010).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147-162.
- 전영자·전예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정광중·오성배·황석규·고광명. (2011).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2). 173-193.
- 정상준. (2003).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문화사회학회 : 역사와 문화 7호**, 11-36.
- 조윤주.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3), 43-58.
- 조혜영 외.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혜영. (2009).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2(1), 263-295.
- 최 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

- 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227.
-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51-77.
- 최셋별 · 이명진 · 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 감정조절이론(ACT)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1-30.
- 통계청. (2008). **2008년 사회조사(보건·가족 부문) 결과**.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 하경애.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정책보고서, 2010-06,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승준. (2008). 동화주의 모델의 위기론과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권 3호**.
- 한혜림. (2010).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행정안전부.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계 주민현황**.
- 허상문. (2011). **권당문화**. 제주일보, 2011년 8월 31일, 출처: <http://www.jejunews.com> (검색일 : 2011. 10. 16)
- 홍미연. (2011). **코시안(Kosian)청소년과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범주.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박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황석규. (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35권, 371-404.
- 황은지. (2011). **자민족중심주의, 애국심, 세계주의가 국내 브랜드 VS 외국 브랜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152-184.
- 황정미 · 김이선 · 이명진 · 최현 ·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자 신고현황 www.mofat.go.kr(검색일 : 2011. 3. 3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www.immigration.go.kr(검색일 : 2011. 3. 30).
- 제주특별자치도 2010 통계연보 www.jeju.go.kr(검색일 : 2011. 7. 30)

2. 외국문헌

- Adolphs, R. (2001). The neurobiology of social cognition.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2001, 11:231-239.
- Banting, K. and Kymlicka, W. (2003). Multiculturalism and Welfare. *Dissent* (00123846), Fall, Vol. 50 Issue 4, 59-66, (Database: SocINDEX with Full Text).
- Bullivant, B. M. (1984). *Pluralism: Cultural Maintenance and Evolution*. Multilingual Matters Ltd.
- Dawis, RV. (1987). Scale Constru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81-489.
- Hammond, R. A. and Axelrod, R. (2006), The Evolution of Ethnocentr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6), 926-936.
- Krapp, K. M. (2004). *Psychologists and Their Theories for Students, Vol. 2: L-Z, Glossary, Index*. a part of the Thomson Corporation.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and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Copyright, 98(2), 224-253.
- Pettigrew, T. F and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Schalk-Soekia, S. R. G. and Van de Vijver, F. J. R. (2008).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 Study Among Dutch Majority Memb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8), 2152-2178.

Sumner, W. G. (1906), *Folkways: a study of the sociological importance of usages, manners, customs, mores, and morals*. New York : Ginn and Company.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Turner, J. C. (2010).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European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dited by Henri Tajfel).

Tylor, S. (2010). *Primitive Culture, Vol. 1 of 2: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Classic Reprint). Forgotten Books (June 9, 2010).

Weiner. I. B. and Edward C. W. (2010),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1, A-C*. 4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Young, B. N. and Snead, D. (2005). *Multicultural and Diversity Issues: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Attitudes and Knowledge. Source: Online Submission, ED490378, <http://eric.ed.gov>, (검색일: 2011. 5. 10).

< 부 록 > 설문지

--	--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주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에서의 다문화 가정이란 ‘결혼이민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탈북주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입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에는 틀리고 맞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은 자료 분석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되어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설문지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7-8분 정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지도교수 이 혁 구

연구자 석사과정 강 준 혁

(E-mail : jhkjeju@naver.com)

※ 지금부터 제시된 설문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응답 칸에 ✓ 표시 해 주십시오.

I.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3.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초대졸 이상
5.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종교없음
6.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① 농촌(읍,면) ② 도시(동)
7. 귀하의 출생지는 제주도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I. 다문화가정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다음은 귀하께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에 “✓” 표 해 주십시오.

다문화 가정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그냥 알고 지내는 것	1	2	3	4	5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1	2	3	4	5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1	2	3	4	5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	2	3	4	5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	2	3	4	5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2	3	4	5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2	3	4	5

9. 귀하께서는 외국인과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외국인 유형	매우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보통이다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절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서양인(백인)	5	4	3	2	1
서양인(흑인)	5	4	3	2	1
동양인(일본)	5	4	3	2	1
동양인(중국, 조선족)	5	4	3	2	1
동남아시아인 *	5	4	3	2	1

* 동남아시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등

Ⅲ. 민족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4	3	2	1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4	3	2	1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4	3	2	1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4	3	2	1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4	3	2	1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4	3	2	1
한국의 정치체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4	3	2	1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4	3	2	1
한국 국적을 갖는 것	4	3	2	1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4	3	2	1

11. 귀하께서는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IV. 다문화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의 가족 중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3. 귀하께서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약_____회) ② 없음
14. 귀하께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다문화가정 친구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_____명 / 친구로 지낸 기간_____년) ② 없음
15. 귀하께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수강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_____회) ② 없음
16. 귀하의 가까운 이웃에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_____가구) ② 없음
17. 귀하께서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다문화 관련 정보를 접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_____회) ② 없음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Study of Main Factor Affected by the Local Residents for Multicultural Family

- Focused on Jeju Region -

Kang, Jun-Hyeok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 that may promote righteous mutual coexistence of diverse citizens, by looking at the local residents' recogni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universal tendency of variables about multicultural family which recognized by surveyed target. In addition, personal characteristic of surveyed target, degree of friendliness to foreigner, importance of requirement to be considered as a Korean, degree of preference about single and multi-race, and multi-culture related experience were also studied and analyze how these variables affect local residents' awareness to multicultural family. Also relative influences between these factors were examined.

For this study, 250 men and women age between twenty and sixty in Jeju region took the survey, during the time period of August 1st, 2011 to August 31st, 2011. 237 surveys were selected and utilized for the final analysis.

Summary of results is listed below.

First, Jeju region residents'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y was relatively neutral, which scored 3.35 average points out of scale 1 to 5. However, they had negative perspective about accepting the multicultural family member as their children's spouse (2.64 points), or as their spouse (2.63 points). Thus they had preferred single race or single lineage. Actually, there were more people were prefer single race (94 people) rather than those who were not (24 people). Particularly in Jeju region, local residents have more friendliness toward to the foreigner who has relatively higher economy standards and science technique, which allows local residents to have both closed mind and selective discrimination perspectives toward multicultural fami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y think that the political and legal factors are far more important than lineage and cultural factors when it comes to recognize foreigner as Korean, thus there are possibility that local residents would accept multicultural family as citizen of common society when the political and legal factors are fulfilled.

Second, object was to figure out how variabl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affects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e perspective of surveyed target's personal characteristic, group of elder people, married people, relatively less educated people, farm villageresidents and inhabitants to Jeju were having more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family than those who are not from above category. On the other hands, a group of people exposure to more multicultural experiences, such as oversea travel, multi-culture education and seminar, and contact with multicultural information, has positive and recep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family, and they also have higher friendliness for foreigner and believes no conditions are important to be considered as Korean.

Third, among many variabl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that have relative influence, friendliness for foreigner, importance of requirement to be considered as Korean, and oversea travel experience were the factors affect the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some practical alternatives suggested below.

First of all, local identification of Jeju resident must be recreated under the common goals, Jeju's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en, various program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local residents in order to experience multi-culture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friendliness to multicultural family. Unremit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accept them as citizen of local society. Lastly, continual civic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is vital to make them understand and embrace the multicultural family in proper manner.

Key word : Jeju Regio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ism, Local Society, Awareness, Ethnic Identity